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배구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 세대가 생활 속 스포츠로 하나된 '화합 대축전' 성료

### 광주, 금메달 10개...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 의지 표출 주목 전남, 금메달 17개...“9월엔 여수로”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눈길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의 대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28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도, 탁구, 씨름 등 31개 종목에 700여명이 참가한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0개 등 총 5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족구 남자일반부(60세 이상) 단체전과 여성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사이클 도로독주 44세이하부 천경영, 빙상 남15세이하부 500m에서 박준

후, 육상 여일부 10km(45세 이상부) 유미정 등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도와 야구, 축구, 줄넘기, 축구 종목에서도 종합 3위를 기록하는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개회식에서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2028 광주 전국체육대회 홍보에 나선 광주선수단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광주선수단이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우정을

나누고 무사히 귀향하게 돼 감사하다”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갑수 회장은 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은 정영장(수영, 1977년생), 임형태(배구, 1983년생)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각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물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35개 종목 1천88명이 참가한 전남선수단은 대회 무더기 다연패와 다관왕 등을 휩쓸며 금메달 17·은메달 24·동메달 24개 등 총 6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상 포환던지기 종목 오이순(66년생·여·74세 이하부)씨는 포환던지기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남자 79세 이하부에 함께 출전한 남편 김

성봉(49년생)씨도 높이뛰기 금메달, 포환던지기 은메달을 획득하며 부부가 나란히 금메달 목에 걸었다. 또한, 오만평(65년생·남) 전남도체육회 이사는 남자 포환던지기 64세 이하부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수영 종목에서는 모리 하루키씨가 자유형 50m(여자30대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연패에 성공했다. 사이클 종목에서는 백은주씨가 도로독주와 크리테리움(이상 여자 40대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단체 종목에서도 성과가 빛났다. 축구 남자 50대부 11인제 경기와 소프트테니스 남자 어르신부 70대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남선수단은, 그라운드골프에서도 남자 일반부 7

4세 이하부와 여자 일반부 74세 이하부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일반부는 대회 4연패를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각 종목별로는 사이클과 씨름이 종합 2위를, 그라운드골프와 승마가 종합 3위를 거머쥐었다. 한편 전남선수단은 개회식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적극 홍보하며 경남도민과 전국의 생활체육인, 관광객들에게 맛과 멋의 고장 전남을 전국에 알리 주목받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선수단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화합의 모습까지 보여준 점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광주은행 안산, 종별선수권 개인 종합우승

### 순천대 김서하, 대회 3관왕

2026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제60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은 28일 예전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에서 거리별 합계 1천384점을 기록하며 2위 손서빈(여주시청·1천380점), 3위 임시현(현대모비스·1천378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산은 싱글라운드로 치러진 이번 대회 70m에서 343점으로 임시현에 이어 은메달, 50m에서 341점으로 손서빈(여주시청·343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60m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유일한 대학생 국가대표 김서하(순천대)가 3관왕에 올랐다. 김서하는 거리별 경기 50m에서 344점을 좌엽혜정(경희대·339점), 유승하(계명대·338점)를 따돌리며 금메달, 30m에서 358점으로 최혜미(동서대·356점)를 제치고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선수들이 팀 동료 안산을 축하해주고 있다.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제공>

거리별 합계 1천384점을 기록한 김서하는 2위 엽혜정(1천375점)에게 9점차로 앞서며 여자 대학 최강자로 우뚝섰다. 한유진(광주여대)은 30m에서 35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조민수(조선대)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민수는 70m에서 336점을 쏘 1위 김기범(계명대·340점), 2위 지예찬(한체대·338점)에 이어 김동훈(국립경국대·336점)과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7-28일 고등부, 29-30일 중등부, 1-2일 초등부(U1-12, U-10) 경기가 이어진다. /박희중 기자

## 1회 선두타자 박재현, 빛바랜 데뷔 첫 홈런

### KT戰 스윙패 당한 KIA, 롯데戰 스윙승 앞두고 아쉬운 무승부



KIA 박재현이 26일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로 나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승부처에서 마침표 없이 멈췄다. KIA는 2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5-5로 비겼다. 올 시즌 첫 무승부다. 앞선 2연승으로 위닝시리즈를 거뒀지만 흐름은 이어지지 않았다. 순위는 5위를 유지했다. 승부처는 막판이었다. 4-5로 뒤진 9회말 1사 만루에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속 타자 병살타로 경기를 매듭짓지 못했다. 타선은 6안타에 그쳤다. 나성범이 4타수 2안타로 중심을 잡았고, 1군에 복귀한 오선우는 투런 홈런으로 힘을 보탤었다. 선발 황동하는 4이닝 5피안타 1사사구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불펜은 엇갈렸다. 조상우, 이태양, 정해영이 실점 없이 버텼다. 성영탁도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최지민이 1이닝 2실점, 홍민규가 1실점으로 흔들렸다.

출발은 좋았다. 1회 선두타자 박재현의 데뷔 첫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2회에는 주효상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다. 4회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고,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동점을 내줬다. 이어 5회에는 솔로 홈런 두 방으로 역전을 내주고 점수차가 벌어졌다. KIA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7회 한 점을 더 내줬지만, 곧바로 반격했다. 1사 1루에서 오선우가 우익수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격차를 좁혔다. 9회, 균형을 맞췄다. 1사 후 안타와 연속 볼넷으로 만든 만루에서 내야 땅볼 때 상대 실책이 나오며 3루 주자 박정우가 홈을 밟았다. 하지만 이어진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연장에서도 승부는 그대로였다. 11회 1사 1, 2루까지 만들었지만, 삼진과 땅볼로 물러나며 마지막 찬스도 살리지 못했다. /주홍철 기자

## 권순우, 광주오픈 한국선수 첫 단식 우승

### 오는 6월 Wimbledon 출전 청신호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350위)가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6에서 한국 선수로는 첫 정상에 올랐다. 권순우는 26일 진원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에서 어거스트 홀그렌(28·덴마크·185위)에게 2-0(6-4, 7-5)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권순우의 통산 15번째 국제대회, 5번째 ATP 챌린저 우승이다. 2016년 광주오픈 장철 이후 한국 선수가 광주오픈챌린저에서 우승한 것은 권순우가 처음이다. 올해 9월째를 맞이한 광주오픈챌린저인데(2020-21 코로나19 미개회), 그간 한국 선수 단식 최고 성적은 2018년 남지성의 준우승이었다. 복식에서는 2018년 남지성-송민규, 2024년 이재문-송민규 조가 우승했지만 단식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순우의 라이벌랭킹은 248위로 2024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200위권 복귀를 확정했다. 5월 대회에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획득해 220위권 정도까지 올라선다면 6월 말 개막하는 Wimbledon 예선 출전권 획득도 가능해진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광희 광주시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우승자 권순우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 권순우,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테니스협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광주시민들의 성원으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내년 대회에는 더욱 발전된 대회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오픈이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육성에 더욱 힘써, 광주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순천시 종합우승...전남장애인체전 성료

전남 장애인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4일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자원의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등 5천여명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선수들은 승패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며 장애를 뛰어넘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냈고, 관람

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했다. 시·군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이 빛난 이번 대회에서 순천시도 우수, 여수시가 준우승, 광양시가 3위를 차지했다. 단체 및 개인 시상에서는 목포시가 모범선수단상, 구례군이 으뜸선수단상, 고흥군이 열정상, 신안군이 도약상, 진도군이 도전상, 전남장애인연맹이 공정경기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선수상은 배구 종목에서 맹활약을 펼친 김영복(해남)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박희중 기자